■ 민족문화연구 제96호(2022.8.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549-590.
http://doi.org/10.17948/kcs.2022..96.549

# 북한 경제 전문용어의 특징과 남북 비교 연구*
## —『조선말대사전』과 『우리말샘』을 중심으로—

최효정(崔孝正)**

목 차

1. 들어가며
2. 남북한 경제학의 범위와 분류 체계
3. 『조선말대사전』(2017)에 등재된 경제 전문용어의 특징
4. 『조선말대사전』(2017)과 『우리말샘』의 용어 비교
5. 나가며

국문초록

기존의 남북한 경제 용어 연구는 대응쌍의 결과를 제시하는 형태가 다수였다. 본고에서는 결과 제시를 넘어 남북한 경제 분야 올림말의 특징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북한 『조선말대사전』(2017) 경제 분야 올림말 2,182개를 내용적, 형태적으로 분석하고, 남한의 『우리말샘』 어휘와 비교하였다. 2장에서는 경제 체제의 상이성을 고려하여 경제학 범위와 분류 체계를 비교하고, 남북한에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밝혔다. 3장에서는 『조선말대사전』 경제 용어와 『광명백과사전: 경제』 올림말의 공통 어휘를 바탕으로 북한 경제학 분류에 따른 내용적 분포 양상을 살펴

* 이 논문은 2020년 롯데장학재단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 본 논문에 대해 귀중한 의견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동국대 북한학과 박사과정 수료.

보았다. 또『조선말대사전』경제 용어 2,182개의 어종을 분석해 한자어로만 구성된 어휘가 95.5%에 달한다는 점을 밝혔다. 4장에서는『조선말대사전』경제 용어와『우리말샘』어휘를 비교하여 '남북 대응형'과 '남북 비대응형'으로 구분하였다. 2,182개 중 '남북 대응형'은 61.8%, 남북 비대응형은 38.2%였다. '남북 대응형' 중 '남북 형태 일치형'에서는 올림말 '생산요소'로 개념상 일치에 대해 고찰하였다. '남북 형태 불일치형'에서는 '어음-수형'의 역사적 기원을 살펴보았다. '남북 비대응형'에서는 북한에만 존재하는 어휘를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사례를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남북 대응형'에 한정해 본다면 '남북 형태 일치형' 비중이 높고, 한자어 어종이 대부분인 점에 비춰 남북 간 소통에 큰 무리는 없다고 보인다. 그러나 '남북 비대응형'이 38.2%가량으로 다수 존재하므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북한에만 있는 경제 용어, 남한에만 있는 경제 용어에 대한 관심이 필수라고 볼 수 있다.

주제어:『조선말대사전』,『우리말샘』, 북한 경제 전문용어, 북한 경제 용어, 남한 경제용어, 남북한 경제 용어, 경제 용어, 올림말, 표제어, 전문용어, 학술용어.

## 1. 들어가며

최근 남북한 어휘 연구에서는 생활용어를 넘어 전문용어 비교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물리, 화학, 축산, 의학, 정보통신 등 과학기술뿐 아니라 음악, 미술, 체육, 도로, 지질 등 거의 전 분야에서 남북한 어휘 비교가 이뤄지고 있다. 전문용어가 강조되는 것은 생활용어보다 전문용어의 남북한 어휘 이질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전문 분야의 용어 대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실제 현장에서 남북 주민 간 교류는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 경제 분야 용어는 먹고사는 문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 더 큰 중요성을 가진다. 실질적인 남북 교류가 시작되면 경제 어휘 지식은 남북 겨레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요소가 될 것이다.

경제 분야에서도 남북한 용어 대조집이 활발하게 발간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주로 용어 대조에 중점을 두고 있어 용어 분석보다는 결과 제시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 경제 분야를 포함하는 대표적인 용어 대조집으로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남북한 학술용어 비교사전: 사회』,[1] 김희철의『남북

경제 금융 상식 용어 해설: 같은뜻 다른말』,[2] 정석우 외의 『북한회계의 이해』[3], 북한개발연구소의 『남북 금융용어사전』, IBK경제연구소의 『남북한 경제용어 비교 사전』[4] 등이 있다. 회계, 금융 등 경제 세부 부문에 한정하여 어휘 대조가 이뤄지다가 IBK 연구에서는 경제 전 분야로 확대되었다. 뜻풀이를 제시하거나 남북의 차이를 간략하게 정리한 용어집도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이들은 기본적으로 용어 대조집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남북 경제 용어의 전반적인 특징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물은 아니다.

남북한 경제 용어를 실질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남북한 무역 용어 비교 연구」가 있다.[5] 이 연구는 용어 분석이 제시돼 있으나, 무역 부문에 한정돼 있고 총량이나 언어학적 분석 등 다각적 접근은 다소 부족하다. 본고에서는 경제의 일부 부문만 다뤘던 한계를 보완하여 경제 전반의 올림말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또 기존에 남북한에서 개념상 대응되는 용어를 중심으로 제시하던 것에서 벗어나, 남북 사전 가운데 한쪽을 기준으로 삼아 올림말 전체의 특징을 살펴본 후 대응되는 용어와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런 방식은 남북한 경제 용어의 범위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양쪽 범위가 다른 상황에서 공통된 개념만 살펴보면 상대에 존재하지 않는 용어들을 놓치고 동질성만 강조할 우려가 있다. '어휘'로 드러나는 그 사회만의 독특한 문화적 실체를 근본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만 존재하는 용어도 포괄하여 해당 분야 전반을 살펴봐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본고에서는 한쪽을 선택하여 경제 용어 전체를 기준으로 특징을 살펴보고, 그중 무엇이 공통적으로 대응되는지 비교해보았다. 여기서는 북쪽 올림말을 기준으로

---

1) 한국학중앙연구원, 『남북한 학술용어 비교사전: 사회』,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0. 경제 분야 용어 약 180여 건을 선정하여 남북한의 뜻풀이와 차이를 서술하였다.

2) 김희철, 『남북 경제 금융 상식 용어 해설: 같은뜻 다른말』, 수류책방, 2018. 남북 금융 분야의 연구의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었다.

3) 정석우 외, 『북한회계의 이해』, 삼일인포마인, 2019. 남북한 회계 용어 대응쌍 약 88개를 부록에 제시했는데 개성공단 입주 시기 경험이 녹아든 결과물이다.

4) 북한개발연구소, 『남북 금융용어사전』, 북스힐, 2021; IBK경제연구소, 『남북한 경제용어 비교 사전』, 기획재정부, 2021.

5) 대외경제정책연구원(조명철 외), 「남북한 무역 용어 비교 연구」, 국립국어원, 2008.

하였으며 남쪽 올림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추후 과제로 삼았다.

비교 대상 어휘로는 남북에서 각기 편찬한 국어대사전 용어에 기반하였다. 대상 어휘를 선정하는 방법은 교과서, 학술지, 관련 법령 등 문헌 추출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실용 어휘 추출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뽑은 어휘가 '경제' 분야 용어가 맞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비해 사전 용어는 해당 사전을 만든 편찬원들이 다른 전문 분야와의 상관성과 개념을 고려하여 전문 분야를 확정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전에 올라온 올림말은 총량이 존재하므로 양적 분석이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에서는 북측 사전으로는 『조선말대사전』(2017)을, 남측 사전으로는 『우리말샘』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비교 분석하였다.

사회과학출판사에서 발행한 북측의 『조선말대사전』(2017)은 북한의 대표적인 국어사전이다. 1992년에 초판 출간 이후 2006년과 2017년에 증보판이 나오면서 어휘 양도 대폭 증가하였다. 본고에서 자료로 삼은 2017년판은 약 44만여 개 올림말을 수록하였으며 4권으로 되어 있다. 『조선말대사전』(2017) 경제 분야 올림말 총 2,182개 어휘를 통해 최신 용어와 경제 전반 용어를 모두 살펴보고자 한다.[6] 남측의 『우리말샘』은 표준국어대사전 약 43만 용어를 포함해 옛말, 방언, 북한어, 전문용어, 신조어 등 약 113만 9천여 어휘를 망라하는 웹사전이다. 『우리말샘』은 전체 올림말 수도 많지만 경제 분야로 한정해 보았을 때도 국내에 존재하는 어느 경제사전보다 많은 올림말을 수록하고 있다. 『우리말샘』에는 67개 전문 분야가 존재하며, 경제(3만 1,825개)와 경영(8,561개)을 합친 올림말 수는 총 4만 386개이다.[7]

---

6) 본고에서 '『조선말대사전』(2017) 경제 용어'의 대상은 뜻풀이에서 '《경제》'로 분류되어 있는 어휘이다. 같은 해 발행된 학술용어전자사전 『거울』2.0(2017)은 『조선말대사전』(2017)보다 방대한 전문용어를 수록하고 있다. 경제 분야로 분류된 어휘 수는 『조선말대사전』(2017)이 2,182개, 학술용어전자사전 『거울』이 8,383개로, 후자가 전자보다 약 4배 많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말대사전』(2017)을 대상으로 삼고, 『거울』을 기준으로 남북한 용어를 비교하는 것은 향후 과제로 삼고자 한다. 북한에서 경제 용어를 다룬 사전으로는 『조선말대사전』, 『거울』(2017) 외에도 『경제사전』(1970, 1985), 『재정금융사전』(1995), 『현대국제금융사전』(2006) 등이 있다. 이 중 『재정금융사전』, 『현대국제금융사전』은 금융 분야에 한정돼 경제 전반을 살펴보기에는 제한적이고, 『경제사전』(1985)은 발행된 지 약 37년가량이 지나 최신 올림말을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 2. 남북한 경제학의 범위와 분류 체계

### 1) 경제 체제의 차이

1945년 분단 이래 남한과 북한 주민들의 생활 양식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남북한 경제 체제의 차이이다. 남측의 자본주의 경제와 북측의 사회주의 경제가 어떻게 다른지 간략하게 살펴보자.

양자의 차이는 '생산수단 소유'와 '경제조정기구'라는 두 개의 틀로 설명할 수 있다. 전자를 기준으로 할 때는 생산수단을 민간이 소유하면 자본주의, 국가가 소유하면 사회주의이다. 경제조정기구로 보면 수많은 경제단위의 조정 활동을 시장에 맡기면 자본주의, 국가계획이 좌우하면 사회주의이다.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민간자본 축적을 허용하지 않아 금융 분야 발달이 어렵다. 또 수급균형 조정자가 시장이 아닌 국가계획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에 없는 계획 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제품 가격 또한 수요·공급의 시장가격이 아닌 국가고시에 따라 정해진다.[8]

남북한 주민들은 똑같이 경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경제 양상 즉, 물질적 재화와 비물질적 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주체와 작동 시스템 자체는 상이하다. 언어와 사회는 상호작용하는 존재이므로, 남북한 경제 용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남북한 경제학 범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남북 모두 자신이 속한 체제의 경제적 개념만 가지고는 상대의 용어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7) 2020년 4월 22일 우리말샘 검색 기준. 이 수치는 『NEW 경제용어사전』 올림말이 약 3,600여 개, 박은태·박유현의 『경제학사전』이 1,460여 개, 한경 경제용어사전이 약 1만여 개, 매일경제 경제용어사전이 약 1만 2589개 정도인 것에 비하면 많은 양이라고 할 수 있다. 미래와경영연구소 저, 『NEW 경제용어사전』, 미래와경영, 2006; 박은태·박유현 저, 『경제학사전』, 경연사, 2019. 『경제학사전』은 여러 차례 개정돼 출판되었다; 한경 경제용어 홈페이지 주소, https://dic.hankyung.com / (2022.06.20. 검색).

8) 조규진, 『사회주의기업의 분석—경제체제적 관점—』, 두남, 2010, 13-19면. 여기서 '생산수단'은 노동과 결합해 인간으로 하여금 제품을 생산하게 하는 수단, 주로 토지와 기업 등을 뜻한다.

### 2) 경제학 범위와 분류 체계의 비교

북한 경제학 범위와 체계를 알아보기 위한 자료로는 『광명백과사전 5: 경제』(2010)와 『주체정치경제학』(2004) 목차, 『거울』2.0에서 '경제학' 올림말의 뜻풀이를 활용하였다.(〈표-1〉)[9]

〈표-1〉 북한 경제학의 범위와 분류 체계

| 『주체정치경제학』(2004) | 『광명백과사전 5: 경제』(2010) | 『거울』 '경제학' |
|---|---|---|
| 1. 총론 | 1. 경제에 대한 일반적리해 | 1. 일반경제학 |
| 1) 경제생활 | 1) 경제생활 | 1) 정치경제학 |
| 2) 경제제도 | 2) 경제관계와 경제제도 | 2) 경제발전사 |
| 3) 사회적생산 | 3) 사회적생산과 경제의 류형 | 3) 경제학설사 |
| 4) 경제법칙 | 4) 경제법칙과 경제범주 | 4) 경제사상사 |
| 2. 자본주의경제 | 2. 자본주의경제 | 2. 전문경제학 |
| 1) 자본주의경제제도의 확립 | 1) 자본주의경제제도 | 1) 재정학 |
| 2) 자본주의경제제도의 착취적본질 | 2) 국가독점자본주의 | 2) 금융학 |
| 3) 국가독점자본주의 | 3) 현대제국주의체계 | 3) 가격학 |
| 4) 현대제국주의체계 | 4) 현대제국주의의 국내인민대중에 대한 수탈체계 | 4) 인민경제계획화 |
| 5) 자본주의적인민수탈 | 5) 현대제국주의의 해외경제적침략과 략탈체계 | 5) 경제통계학 |
| 6) 해외경제적침략과 략탈 | 6) 제국주의멸망의 합법칙성 | 6) 회계학 |
| 7) 정보산업시대의 착취관계 | 3. 사회주의경제 | 7) 경영활동분석 |
| 8) 자본주의멸망의 합법칙성 | 1) 사회주의경제제도의 확립 | 8) 정보경제학 |
| 3. 사회주의경제 | 2) 사회주의경제제도의 특성 | 3. 부문경제학 |
| 1) 사회주의경제제도의 확립 | 3)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 | 1) 공업경제학 |
| 2) 사회주의경제제도의 특성 | 4) 사회주의적생산 | 2) 농업경제학 |
| 3)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 | 5) 부문별경제 | 3) 기본건설경제학 |
| 4) 인민경제의 계획적균형적발전 | 6) 사회주의경제관리 | 4) 운수경제학 |
| 5) 상품생산과 가치법칙 | | 5) 체신경제학 |
| 6) 사회주의적생산 | | 6) 자재경제학 |

9) 지면의 한계로 더욱 자세한 분류 체계는 서술하지 못하였다. 구체적인 부분은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백과사전출판사, 『광명백과사전 5: 경제』, 백과사전출판사, 2010; 국가국어사정위원회·통계정보기술교류사, 학술용어전자사전 『거울』, 2017. 본고에서 지칭하는 '광명백과사전'은 전부 5권 '경제편'을 일컫는다.

| | | |
|---|---|---|
| 7) 사회주의적분배<br>8) 생산물의 류통<br>9) 사회주의재정과 화폐류통<br>10) 사회주의확대재생산<br>11) 사회주의경제관리<br>12) 대외경제관계<br>13) 사회주의경제관계의 발전 | 4. 조선경제사<br>5. 경제학설사<br>6. 국제경제관계<br>7. 경제조종학 및 경영정보체계 | 7) 상업경제학 |

출처: 김재서 외, 『주체정치경제학』,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4; 백과사전출판사, 『광명백과사전 5: 경제』,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10; 위의 자료, 『거울』2.0 '경제학' 뜻풀이 참고하여 저자 작성.

남한의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범위를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는 경제 전문용어를 수록하고 있는 『경제학사전』(2019)의 목차와 대중적 원론서 두 권의 목차를 살펴보았다.(〈표-2〉)[10][11]

〈표-2〉 남한 경제학의 범위와 분류 체계

| 『경제학사전』(2019) | 『경제학원론』(이준구 외) | 『경제학원론』(강남호 외) |
|---|---|---|
| 1. 기초개념 | 1. 경제학의 기초 | 1. 경제학의 기초 |
| 2. 가격 | 1) 경제학이란? | 1) 경제와 경제학 |
| 3. 생산, 소비 | 2) 경제학 연구의 방법 | 2) 경제위기와 경제학자 |
| 4. 산업조직 | 3) 수요, 공급 그리고 시장의 균형 | 3) 경제문제와 경제체제 |
| 5. 국민소득 | 2. 소비자이론 | 2. 미시경제학 |
| 6. 화폐, 금융 | 3. 생산자이론 | 1) 수요공급이론 |
| 7. 재정 | 4. 상품시장과 경쟁 | 2) 소비자이론 |
| 8. 경제발전, 성장 | 5. 생산요소시장과 소득분배 | 3) 생산이론 |
| 9. 경제변동 | 6. 미시경제이론의 여러 문제 | 4) 생산비이론 |
| 10. 경제사, 한국경제사 | 7. 거시경제이론 입문 | 5) 시장이론 |
| 11. 경제학사, 학파 | 8. 국민소득의 결정 | 6) 생산요소시장이론 |
| 12. 노동경제학, 사회정책 | 9. 화폐와 국민경제 | 7) 일반균형분석과 후생경제학 |
| 13. 통계, 수리경제, 수학 | 10. 경제안정정책의 이론 | 8) 시장의 실패와 공공경제 |

10) 지면의 한계로 더욱 자세한 분류 체계는 서술하지 못하였다. 구체적인 부분은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박은태・박유현 저, 앞의 책; 이준구, 이창용, 『경제학원론』. 문우사, 2020.

11) 남한 경제학 분류 체계와 관련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문연구분야별 분류표와 한국경제학회의 경제학 분류표, 미국경제학회의 JEL(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분류기호 등이 있지만 해당 범위가 매우 넓고 체계의 깊이가 있기에 본고에서는 〈표-2〉로 대신하였다.

| | | |
|---|---|---|
| | | 9) 미시경제이론의 확장 |
| | | 3. 거시경제학 |
| | | 1) 거시경제학의 기초 |
| 14. 국제경제, 기구 | 11. 실업과 인플레이션 | 2) 고전학파의 국민소득결정이론 |
| 15. 경영 및 기타 | 12. 경제성장의 문제 | 3) 화폐수요와 금융정책 |
| 16. 환경 | 13. 국제경제 | 4) IS-LM모형 |
| 17. 인명 | 14. 세계 경제의 현황 | 5) 총수요와 총공급이론 |
| | | 6) 인플레이션과 실업 |
| | | 7) 국제경제이론 |
| | | 8) 경제성장과 발전이론 |

출처: 박은태・박유현 저(著), 『경제학사전』, 경연사, 2019; 이준구, 이창용, 『경제학원론』, 문우사, 2020; 강남호・김경표, 『경제학원론』, 정독, 2022.

공통점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남북 모두 총론, 즉 경제 일반이 있고 그것을 맨처음 다룬다는 점이다. 그 외에는 대체로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남북한 경제 체제의 다름에서 비롯된 것이다.

첫째, 북한 『광명백과사전』과 『주체정치경제학』에서는 '사회주의경제'와 '자본주의경제'라는 경제 체제별로 체계의 큰 줄기를 구분했으나, 남한은 크게 '미시경제', '거시경제' 등으로 분류하였다. 즉 남북한 경제학은 편성 대상과 방식 자체가 다르다. 남측 경제학에서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가 경제사, 노동경제학, 국제경제 등에서 부분적으로만 언급되지만, 북측 경제학에서는 자본주의 경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북한 경제학 체계 안에 자본주의 경제가 별도의 장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회주의 경제 체제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반대급부에서 발생하였다. 즉 자본주의가 사회주의 발생의 원인인 것이다. 자본주의와 그 비판 지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사회주의 경제의 정당성을 설명할 수 있으므로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주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다.

둘째, 북한 경제학에서 자본주의 경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은 남한과 매우 다르다. 북한에서 다루는 자본주의는 금융 발달에 따른 현대적 서구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 발생 이전 즉, 제국주의적 자본주의

착취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자본주의 경제'라는 용어는 같지만 각각에서 함의하는 범위와 세부 구성은 다른 것이다.

셋째, 남북 어느 한쪽 경제 체제에만 존재하는 범위와 세부 분야가 존재한다. 북측의 경제조종학, 인민경제계획화 등이 그렇고, 남측의 소비, 소비자 이론, 환경, 국민소득, 실업과 인플레이션 등이 그러하다. 북한에서 인민경제계획이 강조되는 것은 북한 경제가 국가 계획으로 조정되기 때문이다. 경제조종학은 사회주의 소련 시기의 산물로 방대한 경제계획을 세우기 위한 수리경제학적인 방법론이다. 또한 북한에는 공식적으로 소비재를 제외하고는 사적 소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비, 소비자 관련 분야가 없다. 실업, 인플레이션도 사회주의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로만 언급될 뿐 별도 분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12]

한편 북한 사전 『거울』에서는 올림말 '경제학'의 뜻풀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13]

> 사회의 물질적부의 생산, 분배, 교환, 소비분야에서 작용하는 법칙들을 연구하는 과학. (…) 경제학은 우선 그 대상의 특성에 따라 일반경제학과 전문경제학, 부문경제학으로 구분할수 있다. 경제과학체계의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루고있는 **일반경제학**에는 정치경제학, 경제발전사, 경제학설사, 경제사상사 등이 속한다. **전문경제학**에는 재정학, 금융학, 가격학, 인민경제계획화, 경제통계학, 회계학, 경영활동분석 등이 들어간다. 정보기술과 정보산업의 발전은 새로운 독립적인 경제과학분과로서의 정보경제학의 출현을 가져왔다. **부문경제학**은 개별적인 경제부문에서 작용하는 경제법칙들의 특수한 발전형태와 그 리용조건을 해명한다. 부문경제학에는 공업, 농업, 기본건설, 운수, 체신, 자재, 상업경제학 등이 속한다. 전문경제학과 부문경제학에는 해당한 경영학들이 있게 된다. (…)

여기에서는 경제학을 대상의 특성에 따라 일반경제학, 전문경제학, 부문경제학으로 나누었다. 눈여겨 볼 점은 전문경제학의 세부 구성이 현대 자본

12) 진유정 · 박순성, 『북한의 학문세계(상)』, 선인, 2009, 138-139면.
13) 굵은 글씨 강조는 저자가 표시. 국가국어사정위원회 · 통계정보기술교류사, 앞의 책.

주의에서 다루는 주제인 재정, 금융, 가격, 회계, 경영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민경제계획화 부문만 제외하면 자본주의 경제의 주요 관심사와 매우 유사하다. 그중에서도 '금융'은 1985년에 발행된 『경제사전』의 '경제학' 올림말 뜻풀이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이다.[14] 이는 북한이 국제 경제교류가 중시되는 현대에 자본주의 경제의 주요 관심사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북한 학술지 『경제연구』에서도 자본주의 경제에서 사용하는 용어 개념을 종종 소개하는 것과도 연관된다.

## 3. 『조선말대사전』(2017)에 등재된 경제 전문용어의 특징

앞서 살펴본 북한 경제학 범위를 토대로 『조선말대사전』(2017) 경제 용어 2,182개에 대한 심층적인 고찰을 실시하였다. 내용 분석과 형태 분석의 두 가지 접근을 시도했는데, 내용 분석을 위해서는 북한 『광명백과사전: 경제』의 분류 체계를 빌려 올림말의 분포 양상을 살펴보았다. 형태 분석을 위해서는 올림말 2,182개에 대해 어종 분석을 진행하였다.

### 1) 내용적 분포

『조선말대사전』(2017) 경제 분야 올림말이 내용적으로 어떻게 분포돼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분류 체계를 갖고 있는 『광명백과사전: 경제』의 올림말을 추출해 『조선말대사전』 경제 분야 올림말과 형태가 일치하는 공통 어휘를 뽑았다. 이를 대상으로 『광명백과사전』 7개 편 중 어디에 속하는지 살펴보고 『조선말대사전』 경제 전문용어의 내용적인 분포 양상을 파악하였다.[15]

---

14)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경제사전』,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5.

15) 『광명백과사전』은 백과사전이기 때문에 언어 사전의 올림말과는 용어 선정 방법이 다르지만, 이 방식으로 『조선말대사전』 경제 용어의 대략적인 범위와 세부 분류 맥락은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광명백과사전』의 범위가 적절하다고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광명백과사전』은 백과사전이기는 하지만 『조선말대사전』처럼 사전 계열이기 때문에 대학교 교재인 『주체정치경제학』이나 사전의 '뜻풀이'보다 분류 체계 면에서 『조선말대사전』과 호응성이 높을 가능성이 많다. 둘째, 『광명백과사전』은 일정한 체계를 갖고 있고 그 체계에 따라 분류된 용어들이 실제로 개념과 함께 광범위하게 실려 있다. 셋째, 『조선말대사전』 경제 용어에서 '조선경제사', '경제학설사',

2,182개 용어를 일률적으로 7개 세부 부문으로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무엇보다 해당 분류 결과를 북한 국어학자와 경제학자에게 직접적으로 검증받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조선말대사전』 경제 용어의 분포를 대략적으로 살펴본다는 목표를 갖고, 『광명백과사전』의 올림말과 형태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을 대상으로 고찰해보았다.

『광명백과사전』의 분류는 크게 '경제에 대한 일반적 리해(㉠)', '자본주의 경제(㉡)', '사회주의경제(㉢)', '조선경제사(㉣)', '경제학설사(㉤)', '국제경제관계(㉥)', '경제조종학 및 경영정보체계(㉦)'의 총 7개 분야로 구분된다.[16] 한글 표기를 기준으로 두 사전의 올림말 형태가 완전히 일치하는 어휘는 ㉠-24개, ㉡-77개, ㉢-88개, ㉣-10개, ㉤-15개, ㉥-54개, ㉦-7개로 총 275개가 도출되었다.

『광명백과사전』 경제편과 『조선말대사전』(2017) 경제 용어의 공통 어휘 중 1편인 '경제에 대한 일반적 리해'에 포함되는 어휘는 〈표-3〉과 같이 24개이다. '가격', '경제제도', '교환', '소비', '분배', '소비' 등 남북 모두에서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어휘가 눈에 띈다.

〈표-3〉 '경제에 대한 일반적 리해' 부문 올림말

| 가격 | 가치 | 가치법칙 | 경제범주 | 경제법칙 | 경제제도 |
|---|---|---|---|---|---|
| 교환 | 단순재생산 | 로동대상 | 로동수단 | 보조주화 | 분배 |
| 분업 | 사회적필요로동시간 | 상품경제 | 소비 | 시장경제 | 은행권 |
| 일반적등가물 | 자연경제 | 지폐 | 협업 | 화폐 | 확대재생산 |

출처: 『광명백과사전 5: 경제』와 『조선말대사전』 경제 용어에서 저자 추출.

'경제조종학 및 경영정보체계' 관련 용어가 다수 발견되었으나, 『주체정치경제학』의 범위에서는 이 분류를 포함하지 않는다. 넷째, 『거울』(2017) '경제학' 뜻풀이에서 '1. 일반경제학, 2. 전문경제학, 3. 부문경제학'에서 전문경제학인지, 부문경제학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북한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전문가 집단의 도움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보다 더욱 세부적으로 분류된 체계 또한 너무 많아서 감당하기 어렵다.

16) 세부 분류 제목 끝의 '㉠, ㉡, ㉢, ㉣, ㉤, ㉥, ㉦'는 본래 없는 것이지만 본고의 서술 편의를 위해 저자가 붙였다.

〈표-3〉에서 음영 표시 용어는 남측에도 대응어가 있는 올림말이다. 앞선 분석대로 남북한 경제학 범위의 비교에서 주요 공통점은 남북 모두 총론에 해당하는 '경제 일반' 부문이 있다는 것이다. '경제 일반' 관련 어휘인 만큼 남측『우리말샘』에 대응하는 용어가 있는 것이 24개 중 23개나 된다. 경제 일반 부문에서 남북한이 다수의 어휘를 공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17]

두 번째 부류인 '자본주의경제'는 '1장 자본주의경제제도', '2장 국가독점자본주의', '3장 현대제국주의체계', '4장 현대제국주의의 국내인민대중에 대한 수탈체계', '5장 현대제국주의의 해외경제적침략과 략탈체계', '6장 제국주의멸망의 합법칙성'으로 구성되어 있다.[18] 각 장 제목을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자본주의'와는 다소 다른 주제를 함의한 것을 알 수 있다. 1장의 세부 분류는 '자본주의적경제관계', '고용로동에 대한 자본의 착취', '독점의 지배', '정보산업시대의 착취관계' 등으로, 독점이나 착취 등 자본주의의 부작용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현대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주의 발생 이전의 자본주의에 초점을 둔 것이다. 즉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멸망한다'는 사회주의적 관점을 바탕으로 자본주의 경제 항목들을 편성하였다.

『조선말대사전』 경제 용어이면서『광명백과사전』의 '자본주의경제' 용어로 제시되어 있는 어휘는 〈표-4〉과 같다.

〈표-4〉 '자본주의경제' 부문 올림말

| 가격카르텔 | 간접세 | 간접투자 | 결제통화 | 경매 | 경제공황 |
|---|---|---|---|---|---|
| 계렬기업 | 고정자본 | 고한제도 | 관세 | 관세장벽 | 국영기업 |
| 국제수지 | 금융자본 | 대부자본 | 덤핑 | 독점지대 | 리권 |
| 리윤참가제도 | 리자률 | 무역수지 | 반투매관세 | 발권은행 | 보호관세 |

17) 남측『우리말샘』에 대응하는 용어가 있는 23개 어휘 가운데 남북이 형태가 완전히 일치하는 대응쌍은 21개였다.『우리말샘』에서 형태가 불일치하는 올림말로 대응된 용어는 '경제제도', '보조주화'이다. 전자는 남측의 '사회적경제제도'에, 후자는 남측의 '보조화'에 대응되었다. '사회적필요로동시간'은 북한에만 존재하는 어휘로,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생산물의 가치를 그 생산물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로동시간'으로 측정한다.

18) 백과사전출판사, 앞의 책, 38면.

| 부등가교환 | 산업합리화 | 상속세 | 상업리윤 | 상업신용 | 상업은행 |
|---|---|---|---|---|---|
| 상품증권 | 새끼회사 | 수입관세 | 수출관세 | 수출신용보험 | 수출장려금 |
| 시간임금 | 신탁은행 | 실질임금 | 약속수형 | 어미회사 | 유한회사 |
| 은행신용 | 임금 | 잉여로동 | 자본 | 자본수출 | 자본주의 기본경제법칙 |
| 재정관세 | 조세회피지 | 주식회사 | 주주 | 주주총회 | 증권시세 |
| 증권시장 | 지불보증 | 직접투자 | 차액지대 | 카르텔 | 콘체른 |
| 테일러제도 | 통제주 | 투매수출 | 투자은행 | 트레스트 | 특혜관세 |
| 평가인하 | 할인정책 | 합명회사 | 합자회사 | 화폐류통법칙 | 화폐증권 |
| 환자 | 환자수형 | 환자시세 | 환자파동 | 회사 | |

출처: 『광명백과사전 5: 경제』와 『조선말대사전』 경제 용어에서 저자 추출.

〈표-4〉를 보면 북한이 제시하는 '자본주의경제' 용어는 독점, 세금, 자본, 노동, 환율 등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어휘의 양 또한 다른 편에 비해 많은 편인데, 실제로 『조선말대사전』 경제 어휘에서 '자본주의 용어'로 볼 수 있는 사례는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19] 북한 사전에 자본주의 경제에서 쓰이는 용어들을 많이 실은 이유는 앞서 언급한 대로 북한 사회주의 경제 체제가 자본주의경제에 대한 반대급부에서 발생하여, 사회주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올림말의 뜻풀이도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것들이 많다. 예컨대 '간접세'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세금을 통한 가혹한 착취를 가리우기 위하여 주민들의 소득이나 재산에 대하여서가 아니라 대중소비상품의 가격 또는 봉사료 등에 붙이는 세금"이다. '세금'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과, '가혹한 착취'라는 용어로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말샘』에서 '간접세'는 법률 분야 용어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자와 세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조세 부담자가 다른 조세. 부가 가치세·주세·관세 따위의 소비세와, 인지세·등록세·통행세 따위의 유통세가 있다."로 가치 판단에 대한 요소는 찾아볼 수 없다.

19) 우하은에 따르면 『조선말대사전』(2017) 경제 용어 가운데 '자본주의 용어'로 볼 수 있는 올림말은 528개이다. 우하은, 「북한 『조선말대사전』 자본주의 경제용어의 특징 분석」, 이화여대 석사학위 청구논문, 2020.

세 번째 부류인 '사회주의경제'는 '1장 사회주의경제제도의 확립', '2장 사회주의경제제도의 특성', '3장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 '4장 사회주의적생산', '5장 부문별경제', '6장 사회주의경제관리'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보통 '사회주의 계획경제'라고 할 때 '계획경제'에 해당하는 부분이 6장에 분포되어 있다. 6장은 '1절 인민경제계획화', '2절 생산지도', '3절 로동행정사업', '4절 설비관리', '제5절 자재관리', '6절 재정관리, 금융', '7장 회계', '8장 통계'이다.

『조선말대사전』에서 경제 분야로 분류되어 있는 올림말이면서 『광명백과사전 5: 경제』의 '사회주의경제'의 용어로 제시되어 있는 어휘는 〈표-5〉과 같다.[20] 주요 주제는 계획, 계획지표, 국가예산, 국가에 바치는 자금, 기업재정 등이다.

〈표-5〉 '사회주의경제' 부문 올림말

| 가격 | 가격제정 | 가격지수 | 가변구성 지수 | 간접비 | 경제구조 |
|---|---|---|---|---|---|
| 경제수학적방법 | 경제토대 | 공업부문 구조 | 공업생산 계획 | 국가관리비 | 국가기업 리득금 |
| 국가예산 | 국가예산 수입 | 국가예산 지출 | 국민소득 | 국영상업 | 균형표적 방법 |
| 금액지표 | 기본건설 계획 | 기업소 순소득 | 기업소재정 | 기업소 재정계획 | 기준화방법 |
| 도급생활비 | 도매상업 | 량적지표 | 류통비 | 무현금류통 | 물량지수 |
| 분류법 | 사회순소득 | 사회주의 경제관리 | 사회주의 공업화 | 사회주의 기본경제법칙 | 사회주의적생산 |
| 사회주의적 집단경리 | 사회주의적 확대재생산 | 사회 총생산물 | 상업 | 상업부가금 | 상업형태 |
| 상품생산 | 상품생산액 | 생산공정 관리 | 생산수단 | 생산원가 | 생산조직 |
| 생활비 등급제 | 세부지표 | 소비재 | 소상품 경제형태 | 수매가격 | 수익성 |

20) 백과사전출판사, 앞의 책, 134-347면.

| 순생산액 | 신용 | 신용<br>제일주의 | 예속경제 | 원가 | 원가계산 |
|---|---|---|---|---|---|
| 인민경제<br>계획화 | 인민경제<br>사업비 | 자본주의적<br>경제형태 | 자재상사 | 전인민적<br>소유 | 정액생활비 |
| 종합지표 | 중앙예산 | 중앙집중적순소득 | 지방예산 | 지수 | 지수체계 |
| 직접비 | 질적지표 | 총생산액 | 토지관리 | 통계보고 | 통계조사 |
| 통계표 | 파종면적 | 판매원가 | 현금류통 | 현물지표 | 협동단체리득금 |
| 협동단체<br>상업 | 협동적소유 | 화폐류통 | 회계계산 | | |

출처: 『광명백과사전 5: 경제』와 『조선말대사전』 경제 용어에서 저자 추출.

네 번째 부류인 '조선경제사'는 '1장 원시공동체사회의 경제', '2장 노예소유자사회의 경제', '3장 봉건사회의 경제', '4장 우리 나라에서 자본주의적 경제관계의 확대발전, 일제의 식민지경제정책에 의한 경제적략탈', '5장 새 조국건설시기 경제', '6장 조국해방전쟁시기 경제', '7장 전후인민경제복구건설과 사회주의기초건설시기 경제', '8장 사회주의전면적건설시기 경제', '9장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시기 경제', '10장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며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시기 경제'의 하위 체계를 갖고 있다.

『조선말대사전』에서 경제 분야로 분류되어 있는 올림말이면서 『광명백과사전』의 '조선경제사'의 용어로 제시되어 있는 어휘는 〈표-6〉과 같다.[21]

〈표 6〉 '조선경제사' 부문 올림말

| 가내수공업 | 공장제<br>수공업 | 국가<br>예산지출 | 농업협동화 | 봉건적<br>토지소유관계 | 사회주의<br>기초건설 |
|---|---|---|---|---|---|
| 생산판매<br>협동조합 | 전매제도 | 중앙은행 | 화폐지대 | | |

출처: 『광명백과사전 5: 경제』와 『조선말대사전』 경제 용어에서 저자 추출.

〈표 6〉의 용어들은 경제와 관련되어 있기도 하지만 역사와 연관되어 있기도 하다. 따라서 『광명백과사전』 경제편에 있더라도 핵심 어휘가 아닌 이상

21) 같은 책, 348-461면.

『조선말대사전』 경제 부문에서는 생략된 어휘가 많았다. 이에 비해 『광명백과사전: 경제』 '조선경제사'편에 있는 '100일전투', '1884년개혁' 등의 용어는 『조선말대사전』에는 생략돼 있지만 『거울』 경제 부문에는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22]

『조선말대사전』이 뜻풀이에서는 종종 "전날에,", "원시사회에서,", "봉건사회에서,", "낡은 사회에서,", "고구려에서," 등의 문구가 발견된다. 이는 해당 올림말이 일정한 시기나 부문에만 한정되어 쓰일 경우에 이와 같은 서술을 풀이문장의 앞과 뒤에 단 것이다.[23] 용어 뜻풀이에 이와 같은 시기 특정성이 포함된 어구가 포함돼 있다면 주로 조선경제사와 관련된 용어로 볼 수 있다.

다섯 번째 부류인 '경제학설사'의 하위 부문은 '1장 고대, 중세시기의 경제사상', '2장 부르죠아경제리론', '3장 소부르죠아경제리론', '4장 맑스-레닌주의경제리론', '5장 기회주의경제리론', '6장 주체의 경제리론'이다. 『조선말대사전』에서 경제 분야로 분류되어 있는 올림말이면서 『광명백과사전』 경제편의 '경제학설사' 용어로 제시되어 있는 어휘는 〈표-7〉과 같다.[24]

〈표-7〉 '경제학설사' 부문 올림말

| | | | | | |
|---|---|---|---|---|---|
| 객관적 가치론 | 경제성장 단계론 | 계획적 자본주의론 | 구매로동설 | 동업조합 | 상품화폐 관계 |
| 소농견실론 | 소농민경리 | 소상품생산 | 인간자본론 | 조절적 자본주의론 | 중농주의 |
| 중상주의 | 한계 생산력설 | 혼합경제론 | | | |

출처: 『광명백과사전 5: 경제』와 『조선말대사전』 경제 용어에서 저자 추출.

22) '100일전투'와 관련해서는 『거울』 사전에 '100일전투(1978년)', '100일전투(1980년)', '100일전투(2009년)' 총 3개의 올림말이 올라와 있다. 모두 경제건설을 고무하기 위한 사회적 운동이었다. '1884년개혁'은 남측 표현으로는 '갑신정변'이다.

23) 일러두기 '뜻풀이의 방식'에 따르면 "단어의 뜻과 쓰임을 정확히 알도록 하기 위하여 올림말이나 개별적뜻이 일정한 시기 또는 일정한 부문에만 한정되거나 일정한 문체론적특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필요한 전제 또는 특성에 대한 서술을 풀이문장의 앞과 뒤에 달았다."라고 되어 있다.(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증보판)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7, 2-6면)

24) 백과사전출판사, 앞의 책, 462-592면.

주로 '~설', '~론'으로 끝나는 어휘가 많은데 경제 가설과 이론을 소개하는 올림말들이다. '경제학설사'의 개념에 대해 『조선말대사전』은 "정치경제학을 비롯한 경제학설의 과정을 서술한 력사."라고 뜻풀이하였고,[25] 『거울』 2.0은 "(중략) 경제학설은 사람들의 계급적, 물질적리해관계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대변한다. (중략) 경제학설사는 인류력사에서 첫 계급사회인 노예소유자사회에서의 경제사상으로부터 시작하여 각이한 계급들의 리해관계를 반영한 경제학설의 형성 및 교체과정 그리고 서로 다른 경제학조류들사이의 투쟁을 체계적으로 연구한다."라고 부가 설명하였다.

여섯 번째는 '국제경제관계'이다. '1장 국제경제관계의 형성발전', '2장 국제무역관계', '3장 국제투자관계', '4장 국제통화금융관계', '5장 국제과학기술교류관계', '6장 국제적인 로동력이동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조선말대사전』에서 경제 분야로 분류되어 있는 올림말이면서 『광명백과사전』 경제편의 '국제경제관계' 용어로 제시되어 있는 어휘는 〈표-8〉과 같다.[26]

〈표-8〉 '국제경제관계' 부문 올림말

| | | | | | |
|---|---|---|---|---|---|
| 가공무역 | 가공수출 무역 | 관세전쟁 | 국제개발 협회 | 국제견본 시장 | 국제결제 |
| 국제경제 질서 | 국제금융 시장 | 국제보험 | 국제입찰 | 국제통화 | 금본위제 |
| 남북문제 | 단기대부 | 대리판매 무역 | 등록자본 | 무역가격 | 무역구조 |
| 법정평가 | 보세 가공무역 | 보세지역 | 보험가격 | 보호무역 정책 | 상표 |
| 상품거래소 | 세계무역 기구 | 수입보증금 | 수입신용장 | 수체결제 | 수출입구조 |
| 암환자시장 | 연불결제 | 위탁무역 | 자유시장 | 정기예금 | 주가수익률 |
| 중계가공 무역 | 중계무역 | 중기대부 | 증권거래소 | 증권시장 | 지불협정 |
| 차관결제 | 차입자본 | 채권 | 채권시세 | 청산협정 | 통지예금 |
| 특별인출권 | 합작투자 | 환자거래 | 환자시세 | 환자시장 | 환자평가 |

출처: 『광명백과사전 5: 경제』와 『조선말대사전』 경제 용어에서 저자 추출.

25)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증보판) 1』, 앞의 책, 352면.
26) 백과사전출판사, 앞의 책, 594-739면.

'국제경제관계'에는 무역과 국제금융, 국제노동 분야 등의 올림말이 포함돼 있다. 북한은 자본주의경제권과 교류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증권거래소'와 같이 "자본주의사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은 실질적으로 북한 내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자본주의 경제 용어 및 국제경제관계를 알아야 하는 필요성에 따라 관련 올림말을 다수 올려놓았다. 향후 북한이 무역을 확대할수록 국제경제와 관련된 주제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은 '경제조종학 및 경영정보체계'이다. '경영정보'는 남측에서도 익숙한 개념이지만, '경제조종학'은 매우 생소한 분야이다. 그러나 북한 경제학에서 '경제조종학'은 빠질 수 없는 부문이다. 『조선말대사전』에서는 "조종학의 원리와 방법들을 리용하여 합리적인 경제조종을 진행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연구하기 위한 경제과학분야."으로 설명한다.[27] 영문으로 하면 'economic cybernetics'인데, 소련의 경제관리이론에서 발달한 개념이다. 북한에서는 '사이버네틱스'가 '조종'이라고 일컬어진다. 분단 이후에 받아들인 개념임에도 외래어를 그대로 쓰지 않고, 한자어로 바꿔 차용한 점이 눈에 띈다.

『조선말대사전』에서 경제 분야로 분류된 올림말이면서 『광명백과사전』 경제편의 '경제조종학 및 경영정보체계' 용어로 제시되어 있는 어휘는 〈표-9〉과 같다.[28]

〈표-9〉 '경제조종학 및 경영정보체계' 부문 올림말

| 경제수학적모형 | 경제자료 | 경제정보 | 경제조종학 | 경제체계 | 전자자금거래 |
|---|---|---|---|---|---|
| 직접지출곁수 | | | | | |

출처: 『광명백과사전 5: 경제』와 『조선말대사전』 경제 용어에서 저자 추출.

27)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증보판) 1』, 앞의 책, 351면; "경제조종학의 연구대상은 경제체계의 조종과 관련한 정보적과정이며 연구목적은 경제체계의 기능을 가장 합리적으로 조종하기 위한 원리와 방법, 수단들을 찾아내자는데 있다. 경제조종학은 20세기 중엽에 수학과 조종학이 급속히 발전하고 경제연구에서 정량적인 분석이 심화되는 한편 콤퓨터를 비롯한 현대적인 정보처리수단들이 출현하고 그것이 경제관리에 널리 리용됨에 따라 경제학과 수학, 조종학이 서로 결합되면서 발생하였다." 국어사정위원회・국가통계기술, 앞의 사전.

28) 백과사전출판사, 앞의 책, 741-805면.

올림말로도 제시되어 있으면서 언뜻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제조종학(economy cybernetics)'은 무슨 의미일까.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는 노버트 위너(Norbert Wiener)가 제안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중 다양한 분과의 과학자들이 생물과 기계 모두에서 일어나는 제어와 통신 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만들어낸 융합과학이다.[29] 소련의 수학, 과학 이론은 이 이론에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1955년 이후 소련에서는 전 분야에서 사이버네틱스 열풍이 불었다. 특히 경제학 학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이는 개별 경제 부문부터 경제 전체의 관리를 위한 계산의 필요성 때문이었다. 경제학에 사이버네틱스를 도입한 소련의 칸토로비치, 넴치노프, 베르그 등의 연구자들은 수리경제학과 사이버네틱스의 이론 결합을 추구했고 이를 통해 경제 전 부문에 대한 자동계측과 제어 및 관리 이론 형성을 도모했다. 이들이 1960년대 후반 소련 경제의 최적계획과 관리를 추구하는 최적기능학파를 형성했고 이후 소련 경제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30] 즉 '경제조종학'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관리와 무수한 수치들의 계산 필요성에서 발생한 경제 분야의 인공두뇌학이다.

남북한에서 공통으로 존재하는 개념만 비교한다면 '경제조종학' 같은 어휘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남한의 무엇이 북한의 무엇으로 불린다는 '대조'를 넘어 남북한 경제 분야에서 실질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북한에서만 주로 쓰이는 용어, 남한에서만 주로 쓰이는 용어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의사소통에서 정말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은 양쪽에서 모두 개념이 존재해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니라, 아예 개념조차 없어서 인식하지 못하는 어휘들이기 때문이다. '경제조종학'은 북한에서만 주로 쓰이는 대표적인 용어라 할 수 있다.

### 2) 어종 분포

『조선말대사전』의 '경제' 분야 올림말 2,182개의 어종을 고유어, 한자어,

29) 김동혁,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 이론의 소비에트적 변용—과학이론에서 사회관리담론으로—」, 『史叢』, 고려대 역사연구소, 2017, 377-378면.
30) 김동혁, 앞의 논문, 377-378면.

외래어를 중심으로 분석해보았다. 결과는 〈표-10〉과 같다.

〈표-10〉『조선말대사전』 경제 용어 올림말의 어종 분포

<table>
<tr><th>어종</th><th>어종 분석</th><th>예시</th><th colspan="2">개수</th><th colspan="2">비율(%)</th></tr>
<tr><td rowspan="2">고유어 포함</td><td>고유어</td><td>돈, 돈-자리, 치르기</td><td>6</td><td rowspan="2">41</td><td>0.27</td><td rowspan="2">1.88%</td></tr>
<tr><td>고유어+ 한자어</td><td>거둠-률, 곁수-법, 닫긴-모형, 흐름-식-생산, 어음-교환-소, 고리-형-순환-생산-체계, 결제-돈-자리, 교대-곁수, 계산-자리-왼쪽, 상품-흐름-선, 기한-부-어음, 종합-지출-곁수, 비-거주자-사이-거래</td><td>35</td><td>1.60</td></tr>
<tr><td>한자어</td><td>한자어 (한/한+한 등)</td><td>가격, 가격-격차, 가격-공간</td><td colspan="2">2,083</td><td colspan="2">95.46%</td></tr>
<tr><td rowspan="2">외래어 포함</td><td>외래어</td><td>덤핑, 바란스, 신디케이트, 호트-마니, 유럽-오프숀</td><td>13</td><td rowspan="2">58</td><td>0.60</td><td rowspan="2">2.66%</td></tr>
<tr><td>외래어+ 한자어</td><td>갈리온-무역, 그레샴-법칙, 덤핑-방지-관세, 유럽-통화-제도, 가격-카르텔, 국제-트레스트, 금물, 비-폰드-물자, 비용-인플레, 산업-텔레비죤-화, 소-부르죠아-정치-경제-학, 공동-축적-폰드, 불-분할-폰드</td><td>45</td><td>2.06</td></tr>
<tr><td colspan="3">총 계</td><td colspan="2">2,182</td><td colspan="2">100%</td></tr>
</table>

고유어만으로 되어 있는 어휘가 1.27%(6개), 고유어와 한자어로 구성된 어휘가 1.60%(41개), 한자어로만 되어 있는 어휘가 95.46%(2,083개), 외래어로만 되어 있는 어휘가 0.60%(13개), 외래어와 한자어로 구성된 어휘가 2.06%(45개)였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한자어 어종으로만 구성된 어휘 비율이 약 95.46%로 압도적이라는 점이다. 『조선말대사전』이 학술용어에 특화되지 않은 사전이기 때문에 여기 실린 경제 용어는 기초 전문용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경제 분야 기초 전문용어의 어종 중 약 95%가량이 한자어 어종이라는 점은 유의미한 결과이다. 이는 북한의 경제 분야 기초 전문용어가 한자어 어종으로 구성된 비율이 높은 만큼, 북한과 남한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기초 경제 용어의 어종도 한자어 비중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남북한 경제학의 기반이 분단 이전 일본에서 도입되었고 이에 따라 남북이 기초적인 어휘를 공유하고 있기에 가능한 해석이다. 남북한이 모두 한자문화권임을 고려하면, 의사소통의 측면에서 남북 대응쌍 어종이 '한자어-한자어'일 때가 '한자어-외래어'일 때보다 훨씬 이해하기에 수월하다.

남북한 기초 경제 전문용어의 한자어 어종 비율이 높아서, 서로 다른 어종으로 구성된 비중이 높은 분야보다 의사소통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실제 사례를 통해서도 증명된다. 〈표-14〉의 사례 중 '한자어-외래어'인 '흐름식생산-컨베이어 시스템'보다 '한자어-한자어'인 '관세지역-관세영역'의 상호 이해가 더 수월하다고 볼 수 있다. 분단 이후 북한에서 사회주의 도입에 따라 전문화된 용어, 남한에서 자본주의 발달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외래어 어종의 용어 도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심화된 경제 전문용어의 경우 '한자어-한자어' 비중은 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182개의 올림말 가운데 고유어로만 되어 있거나 고유어가 포함된 어휘는 41개로 전체 중 1.88%에 불과했다. 이를 통해 기초 경제 전문용어의 경우 북한에서 '순화' 대상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시해볼 수 있다.[31] 고유어 가운데 가장 많이 출현하는 조어 단위는 '자리'로 13개 어휘에 등장하였고, '곁수' 5회, '되거리' 2회 등이었다. '자리'는 '돈-자리', '계산-자리', '빈-자리'와 같은 합성어 형태로 많이 쓰였다.

외래어로만 되어 있거나 외래어가 포함된 어휘는 58개로 2.66%였다. 외래어 가운데 가장 많이 출현하는 조어 단위는 '인플레'와 '폰드'로 각각 9개 어휘에 등장하였다. '카르텔'은 4회, '트레스트'와 '쁠럭', '유럽'이 3회,

31)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정도이며, 심화 연구가 필요하다.

‘부메랑’과 ‘신디케이트’가 2회이다. 1회 등장한 조어 단위로는 ‘갈리온’, ‘그레샴’, ‘라너’, ‘호트’, ‘마니’, ‘바란스’, ‘벤쳐’, ‘부르죠아’, ‘스와프’, ‘애드온’, ‘에미숀’, ‘엔’, ‘오프숀’, ‘코너’, ‘콘벤숀’, ‘콘체른’, ‘테일러’, ‘텔레비죤’, ‘파트’, ‘풀’, ‘프랑’ 등이 있다.

### 3) 외래어 원어 정보

『조선말대사전』 경제 용어에는 외래어 원어 정보를 갖고 있는 어휘가 있다. 예시 ‘폰드’를 보자.

> 폰드[1](фонд㉤)【명】①《경제》 일정한 목적에 쓸 자금이나 물건. ‖고정~. 류동~. 생산~. 예비~. ② 일정한 사업을 위하여 마련된 성원. ‖로력~.[32]

‘폰드[1]’ 원어 정보에 ㉤는 ‘로어(러시아어)’를 뜻한다. ㉦는 ‘도이취어(독일어)’, ㉥는 ‘에스빠냐어(스페인어)’, ㉣은 영어, ㉠은 일본어, ㉢는 프랑스어이다. ‘폰드’의 미시구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조선말대사전』에는 외래어 원어 외에 ‘영어’ 정보가 따로 없다. 이 점에서 언어 사전인 『조선말대사전』과 학술용어사전인 『거울』에 차이점이 있다. 『거울』 경제 용어의 경우 8,300여 건 중 약 절반 정도인 4,800여건에 영어 정보가 있다. 예를 들어 『거울』의 올림말 ‘가격’은 ‘price’라는 영어 정보를 갖지만, 『조선말대사전』에는 없다.[33] 영어 정보를 활용하고 싶다면 『조선말대사전』보다는 『거울』이 더 유용하다.

올림말 2,182개 중 외래어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은 52개뿐이다.(〈표-11〉)[34]

---

32)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증보판) 3』, 앞의 책, 138면.
33) 『표준국어대사전』도 영어 정보를 필수로 갖고 있지는 않다.
34) 올림말에 외래어 조어 단위가 포함되어 있지만 외래어 원어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어휘로는 ‘덤핑방지관세’, ‘로력폰드’, ‘소부르죠아정치경제학’, ‘통화블럭’이 있다. 이 용어들의 경우 원어 정보가 다른 올림말에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되었다.

〈표-11〉 외래어 원어 정보를 포함한 어휘 목록

| 올림말 | 외래어 원어 | 올림말 | 외래어 원어 |
|---|---|---|---|
| 가격카르텔 | (-kartell[도]) | 애드온방식 | (add-on[영]-) |
| 갈리온무역 | (Galleon[에]-) | 에미숀 | (emission[영]) |
| 게임리론 | (game[영]-) | 엔외채시장 | (yen[일]-) |
| 국제트레스트 | (-Трест[로]) | 유럽오프숀 | (Europe option[영]) |
| 그레샴법칙 | (Gresham[영]-) | 유럽통화제도 | (Europe[영]-) |
| 금풀 | (-pool[영]) | 유럽투자은행 | (Europe[영]-) |
| 덤핑 | (dumping[영]) | 인플레격차 | (←inflation[영]-) |
| 라너효과 | (Lerner[영]-) | 인플레세 | (←inflation[영]-) |
| 바란스 | (←balance[영]) | 인플레지표 | (←inflation[영]-) |
| 반덤핑 | (-dumping[영]) | 임금인플레론 | (-←inflation[영]-) |
| 벤쳐자본 | (venture[영]-) | 초인플레 | (-←inflation[영]) |
| 부메랑현상 | (boomerang[영]-) | 축적폰드 | (-Фонд[로]) |
| 부메랑효과 | (boomerang[영]-) | 카르텔 | (Kartell[도]) |
| 불분할폰드 | (-Фонд[로]) | 카르텔관세 | (Kartell[도]-) |
| 비용인플레 | (-inflation[영]) | 코너 | (corner[영]) |
| 비폰드물자 | (-Фонд[로]-) | 콘벤숀 | (convention[영]) |
| 블럭경제 | (bloc[영]-) | 콘체른 | (Konzern[도]) |
| 산업텔레비죤화 | (-television[영]-) | 테일러제도 | (Taylor[영]-) |
| 생활비폰드 | (-Фонд[로]) | 투자트레스트 | (-Трест[로]) |
| 소비폰드 | (-Фонд[로]) | 트레스트 | (Трест[로]) |
| 수요인플레 | (-←inflation[영]) | 파트 | (PERT[영]) |
| 수입인플레 | (-←inflation[영]) | 폰드 | (Фонд[로]) |
| 수출인플레 | (-inflation[영]) | 폰드물자 | (Фонд[로]-) |
| 스와프거래 | (swap[영]-) | 프랑지역 | (franc[프]-) |
| 신디케이트 | (syndicate[영]) | 호트마니 | (hot money[영]) |
| 신디케이트대부 | (syndicate[영]-) | 환자블럭 | (-←bloc[영]) |

출처: 저자 작성

52개 가운데 원어 정보는 '영어'가 35개, '로어'가 10개, '도이취어'가 4개, '에스빠냐어'가 1개, '일본어'가 1개, '프랑스어'가 1개이다. 북한 외래어는 영어뿐만 아니라 러시아어, 라틴어 원어가 많다는 것이 통념이다. 그러나

라틴어 기원의 북한 외래어는 주로 물리, 화학 등의 기초과학이나 의학 분야 등에 포진해 있다. 경제학은 19~20세기 들어 비교적 뒤늦게 발달한 학문 분야로서 라틴어 기원 용어가 없거나 적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관련 용어가 주를 이루는 만큼 각각 영어와 러시아어(더불어 독일어)가 주된 기원을 이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10〉와 연계해 살펴보면, 외래어 어종을 포함한 경제 용어는 총 58개이고, 외래어 원어 정보를 가진 용어는 52개이다. 중복되는 조어 단위의 외래어 원어 정보 6개가량은 생략된 것을 알 수 있다.

## 4. 『조선말대사전』(2017)과 『우리말샘』의 용어 비교

### 1) 연구 방법

『조선말대사전』 경제 용어 2,182개를 기준으로 남측『우리말샘』 용어를 비교하였다. 『조선말대사전』에서는 경제 분야 용어만을, 『우리말샘』에서는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였다. 한글 형태를 기준으로 했는데, 영어를 기준으로 하지 않은 것은『조선말대사전』 경제 용어 중 원어 정보가 있는 경우가 52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표-11〉 참고)

『조선말대사전』(2017) 경제 전문용어을 기준으로『우리말샘』 용어를 비교한 결과를 '남북 대응형'과 '남북 비대응형'으로 구분하였다. '남북 대응형'은 다시 '남북 형태 일치형'과 '남북 형태 불일치형'으로 나누었다. '남북 비대응형'은 원래 북한에만 있거나 남한에만 있는 용어 모두를 뜻하지만, 본고에서는 북한『조선말대사전』 용어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북한에만 있는 용어에 한정하여 기술하였다.

남북한 어휘의 형태 비교 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였다.

첫 번째는 하나의 어휘는 개념이 동일한 '동의어' 또는 유사한 '유의어'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대표어' 기준을 정해서 남북의 대표어끼리 형태를 비교하였다. 북측『조선말대사전』 경제 어휘에서는 동의어(뜻풀이 말미에 '='으로 표시)가 존재하더라도 올림말을 대표어로 삼았다.

남측『우리말샘』에서는 북측『조선말대사전』경제 어휘와 개념의 일치는 물론, 형태적으로 일치하는 어휘를 우선으로 대표어로 삼았다. 대표어를 중심으로 하였으나 개념이 일치(또는 부분 일치)하는 동의어는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표어끼리의 형태 비교는 어휘 비교의 여러 방법 중 하나일 뿐 절대화할 수 없다. 그럼에도 대표어를 통한 형태 비교는 남북한 용어를 비교하고 경향성을 파악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유의미하다.

두 번째는『우리말샘』에『조선말대사전』경제 어휘와 일치하는 올림말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북한어'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남측 어휘의 대표어로 삼지 않고 제외하였다. 예를 들어『조선말대사전』에 '가격종류'가 있고『우리말샘』에도 '가격종류'가 있으나,『우리말샘』'가격종류'는 '북한어'를 실어놓은 것이므로 남측 어휘로 보지 않고 대응 어휘로도 보지 않았다.

세 번째는 남북한의 사회적·경제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고려하여, 개념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핵심 개념이 일치하면 일치하는 것으로 보았다. 예를 들어 '가격'의 경우, 사회주의 경제와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가격을 책정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의미를 파고들면 완전히 일치하는 개념이 아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노동자가 투입한 노동량에 기초를 두고 가격을 책정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장에서 다른 제품과 일정비율로 교환할 수 있는 교환가치, 즉 수요와 공급 측면을 고려하는 시장가격으로 가격을 책정한다. 그러나 북측에서는 "상품의 가치나 생산수단의 가치형태를 화폐적으로 표현한것.(『조선말대사전』)", 남측에서는 "물건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돈으로 나타낸 것.(『우리말샘』)"으로 핵심 개념은 같으므로 같은 형태로 보았다.

### 2) 남북 대응형

#### (1) 남북 형태 일치형

북측『조선말대사전』경제 분야 올림말과 남측『우리말샘』어휘를 한글 형태 중심으로 통계적으로 비교하였다. '남북 대응형' 가운데 남북한 어휘의

형태가 일치하는 유형의 결과는 〈표-12〉와 같다.

〈표-12〉 '남북 대응형' 중 '남북 형태 일치형'

| 형태 비교 | | | 예시(왼쪽-북, 오른쪽-남) | 개수/비중(%) | | | |
|---|---|---|---|---|---|---|---|
| 남북 형태 일치형 | 완전 일치형 | | 생산요소, 다각무역, 다각화, 다국적 기업, 단기국채, 단기대부, 단기신용 | 1,019 | | 87.4% | |
| | 어문규범 차이형 | 외래어 차이 | 국제**트레스트**-국제**트러스트**<br>**뷸럭**경제-**블록**경제<br>**그레샴**법칙-**그레셤**의 법칙<br>**벤쳐**자본-**벤처**자본<br>통화**블럭**-통화**블록**<br>**트레스트**-**트러스트**<br>**호트머니**-**핫머니** | 7 | 147 | 0.6% | 12.6% |
| | | 두음법칙, 한자어 표기 차이 | 간접**로**동-간접**노**동<br>감가**률**-감가**율**<br>계**렬**기업-계**열**기업<br>계산화**폐**-계산화**폐**<br>**닉**명조합-**익**명조합<br>자**률**관세-자**율**관세<br>한계**리**익-한계**이**익 | 140 | | 12.0% | |
| 총계 | | | | 1,166 | | 100% | |

출처: 『조선말대사전』 경제 용어와 『우리말샘』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조선말대사전』 경제 용어 2,182개 가운데 1,166개 어휘가 『우리말샘』 올림말과 일치하였으며, 이는 전체의 약 53.4%에 해당하는 수치이다.[35] 나머지 1,182개 용어는 형태가 다른 어휘이거나, 북한에만 존재하는 어휘이다. 1,166개 중 남북한 표기가 완전히 일치하는 '완전 일치형'은 1,019개, 어문 규범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 '어문 규범 차이형'은 147개였다. 어문 규범에 따른 차이 중에서도 외래어 표기의 차이보다는 두음법칙이나 한자어 독음의

35) 한용운에서도 『조선말대사전』 경제 용어와 『표준국어대사전』 올림말을 비교한 바 있다. 한용운, 「남북 사전의 전문용어 수록 현황과 과제」, 『새국어생활』, 국립국어원 28-4, 2018. 이 연구에서 사용한 『조선말대사전』은 2007년 판으로 경제 전문용어의 수는 1,639개이다. 『조선말대사전』 경제 용어 1,639개를 기준으로 『표준국어대사전』에 대응하는 올림말은 709개였으며 비중으로는 43%였다. 본고에서는 『조선말대사전』(2017)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며, 용어의 수는 2,182개이다.

차이가 압도적이었다. 이는 〈표-10〉에서 살펴보았듯이 『조선말대사전』 경제 용어에서 외래어 포함 어휘가 58개뿐이며(외래어 원어 정보가 포함된 용어는 52개) 대부분 한자어 어종인 데 기인한다. 두음법칙 차이 사례 중 낯설게 여겨지는 것으로 '자률관세-자율관세'가 있는데, 한자어 '률(律)'이 남측에서는 모음이나 ㄴ 받침 뒤 '렬, 률'이 오는 경우 두음법칙을 적용하는 규칙에 따라 '율'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완전 일치' 유형 중 '생산요소'를 통해 무엇을 '형태의 일치'로 보았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생산요소'의 뜻풀이를 『조선말대사전』과 『우리말샘』에서 살펴보았다.[36]

| | |
|---|---|
| 『조선말대사전』 | 《경제》 생산과정의 필수적요인으로 되는 사람의 **로동력**과 **생산도구** 및 **로동대상**. |
| 『우리말샘』 | (生産要素) 『경제』 생산을 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 대개 **노동, 토지, 자본**을 생산의 삼 요소로 본다. |

남북한 언어 사전에서 '생산요소'의 정의는 명확한 차이를 나타냈다. 『우리말샘』에서는 생산요소로 '노동, 토지, 자본'의 삼 요소를 꼽았으나, 『조선말대사전』에서는 '로동력, 생산도구, 로동대상'을 명시하였다. 북쪽에서 '로동대상'에는 토지, 지하자원, 원료, 반제품 등이 속하지만 자본은 포함되지 않는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남측에서는 생산요소로 '자본'이 포함되지만 북측에서 빠져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노동(노동력, 노동수단, 노동대상)만이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요소'로 인정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과 노동이 모두 생산요소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남북에서 '생산요소'는 의미 차이가 있다.[37]

엄밀하게 파고 들면 남측의 '생산요소'와 북측의 '생산요소'는 서로 다른 용어이다. 지칭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산요소'를 '생산에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로 설정한다는 맥락적인 인식은 남북 모두 공유하는 바이다. 즉, 정확한 개념은 일치하지 않지만 개념의 본질이나 핵심은 일치한다고 볼 수도 있다.

36) 굵은 글씨체는 저자 표시.
37) 조규진, 앞의 책, 65면.

개념이 일치하는지의 판단은 누가 하느냐,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남북 경제 용어에는 이러한 어휘가 다수 존재하여 어려움이 발생한다. 사실 이 용어는 개념에 초점을 두어서 엄밀하게 보면 동형이의어(同形異義語)이고, 형태에 초점을 두어 폭넓게 보면 동형동의어(同形同義語)이다. 본 연구에서는 형태를 기준으로 일치하는 것을 선정하였고, 남북 모두 경제 또는 경영으로 동일한 계열이므로 이러한 어휘들 역시 '남북 형태 일치형'으로 분류하였다.

'남북 형태 일치형' 1,166개 어휘를 대상으로 『우리말샘』의 어떤 분야에 속해 있는지 살펴보았다.(〈표-13〉) 이것은 남북에서 같은 '경제' 부문의 용어를 비교한다고 해도 분야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이다. 북측 용어에 대응하는 남측 용어를 선정할 때는 경제, 경영 분야 용어를 우선하고, 그 외에는 뜻풀이를 고려하였다.

〈표-13〉 '남북 형태 일치형'의 『우리말샘』 분야 분포

| 분야 | 사례 | 개수 |
|---|---|---|
| 『건설』 | 예산가격, 공업건설, 설계계약, 중보수, 지대 | 5 |
| 『경영』 | 감가상각, 개업비, 결산서, 경영권, 경영학, 계획지표 | 116 |
| 『경제』 | 가격공간, 가격카르텔, 가공무역, 가변비, 간접금융 | 799 |
| 『공업』 | 가공원료, 가내수공업, 공업계측, 공업분석, 모체공장 | 15 |
| 『광업』 | 실수률 | 1 |
| 『군사』 | 군표, 가격정보 | 2 |
| 『농업』 | 국영농장, 원종장, 경지리용률, 상품화률 | 4 |
| 『법률』 | 간접세, 경매, 고지, 공동보험, 공동소유, 과세표준 | 79 |
| 『복지』 | 사회보험 | 1 |
| 『사회 일반』 | 공동기금, 사적소유, 사회적소유, 안정인구, 중산층, 토지문제 | 13 |
| 『산업 일반』 | 공정도, 기술지표, 산업, 지식집약형산업, 로동집약형산업 | 6 |
| 『서비스업』 | 관광시장, 도매상업, 수탁판매, 련쇄점 | 4 |
| 『수공』 | 민간수공업 | 1 |
| 『수학』 | 수리통계학 | 1 |
| 『심리』 | 경제심리학 | 1 |
| 『역사』 | 상품화폐경제 | 1 |
| 『정보통신』 | 정보체계 | 1 |
| 『행정』 | 경비예산, 관세, 국가보조금, 사회간접자본, 실행예산, 예비비 | 42 |
| 『환경』 | 유해로동 | 1 |
| 일반어 | 가치, 격차, 기업체, 다각화, 돈, 동결, 무역상, 반제품 | 73 |
| 총계 | | 1,166 |

『조선말대사전』 경제 용어와 대응하는 『우리말샘』 일치 유형의 빈도는 '경제 〉 경영 〉 법률 〉 일반어 〉 행정 〉 공업 〉 사회 일반 〉 기타' 등의 순이었다. 북한에서는 위 용어들을 '경제' 용어로 보지만, 남측에서는 약 20개 내외의 다른 분야 용어로 보고 있다. 이처럼 남북한에서 '경제 용어'로 보는 범위가 다르거나, 한쪽에서는 경제 용어로 보지만 다른 쪽에서는 다른 분야로 보는 것은 여러 배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앞서 언급했듯이 남북한 경제학의 범위 자체가 상이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남북 간 전문 분야의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조선말대사전』 2017년판은 47개, 『우리말샘』은 67개의 전문 분야를 갖는다. 『우리말샘』의 경우 북한보다 전문 분야가 더욱 세분화되어 있고, 경제와 경영을 분리하였다. 북한에서는 경제 용어이지만 남측에서는 법률, 행정 부문에 속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런 어휘들은 주로 세금이나 정책, 국가 재정과 관련한 것들이었다. 일반어 비중이 높은 것도 눈에 띄는데, 남측에서 일반어로 처리된 용어들은 경제 체제의 차이로 인해 남한에서는 일반어와 다름없이 일상적으로 쓰이지만, 북한에서는 해당 용어들이 일상과 거리가 멀고 전문 분야의 틀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개념일 가능성이 높다. 이 외에도 같은 남측 사전끼리라도 편찬 방향과 편찬자의 판단에 따라 분야 정보나 뜻풀이의 기술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말샘』에서 산업 일반 분야에 속한 '노동집약형산업'은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서는 경제 전문용어로 처리되어 있다.

### (2) 남북 형태 불일치형

'남북 형태 불일치형'은 『우리말샘』에 올라와 있는 '북한어' 정보와 지금까지 남북한 경제 용어를 대조하였던 선행 연구 결과에 기반하였다(〈표-14〉).[38] 고려해야 할 점은 '남북 형태 불일치형'이 183개로 조사되었으나 그렇다고

38)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연구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 형태가 다른 대응쌍의 결과를 반영하였다. 다만, 대응쌍 가운데 개념이 일치하는 쌍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은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한 선행연구 자료는 다음과 같다. 김희철, 앞의 책; 북한개발연구소 앞의 책, IBK경제연구소, 앞의 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조명철 외), 앞의 책; 정석우 외, 앞의 책; 한국학중앙연구원앞의 책.

해서 '남북 형태 일치형'도, '남북 형태 불일치형'도 아닌 나머지 용어 833개가 모두 북한에만 존재하는 고유한 어휘는 아니라는 점이다.

먼저, 연구자가 두 사전에서 미처 찾지 대응형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무엇보다 한 사회에서 '개념'은 존재하지만 그것이 모두 사전 용어로 올라와 있는 것은 아니다. 사전 용어로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용어 조합형을 통해 해당 개념을 표상하는 경우가 무수히 많다. 예를 들어 『조선말대사전』 경제 용어인 '기본자재'는 "제품생산에서 기본으로 되는 자재."이다. 『우리말샘』에서는 전 분야에 걸쳐 '기본자재'라는 올림말이 없다. 『우리말샘』뿐 아니라 인터넷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전류나(두산백과 등 네이버 지식백과, 위키백과 등), 약 6,666개의 건설 용어를 수록한 건설사업정보시스템 건설용어사전에도 해당 올림말은 없다.[39]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는 '기본자재'가 매우 많이 쓰인다.[40] 조합형 용어를 양적으로 계량화하는 것은 객관성 등에 비춰 쉽지 않고, 들인 노력만큼의 효용성을 얻기도 어렵다.

『우리말샘』 올림말에 포함되면 대응형이 있는 것으로 보거나, 뜻풀이에 포함되면 있는 것으로 보는 등 기준 설정 방식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남북한에서 개념을 공유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대응형이 되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남북 형태 불일치형'에서 수치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이에 본고에서는 '남북 형태 불일치형'의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다음 수치와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41]

'남북 대응형' 중 '남북 형태 불일치형'은 183개이고, 이는 전체 2,182개 올림말 중 8.38%를 차지한다. 〈표-14〉에서, 남한의 한자어 '계좌'를 북한에서

39) 건설사업정보시스템은 국토교통부가 도로, 하천 건설사업 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문서, 도면 등 각종 정보를 발주기관과 건설업체 간에 온라인으로 공유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https://www.calspia.go.kr/portal/tech/selectConstGlossaryList.do (2022.06.20 검색).

40) 구글 플랫폼을 이용해 '기본자재'를 검색하면 약 1만 500여 개의 검색 결과가 도출된다. https://www.google.com/search?q=%22%EA%B8%B0%EB%B3%B8%EC%9E%90%EC%9E%AC%22&oq=%22%EA%B8%B0%EB%B3%B8%EC%9E%90%EC%9E%AC%22&aqs=chrome..69i57j0i546l5.3630j0j15&sourceid=chrome&ie=UTF-8 (2022.06.20 검색).

41) 〈표-14〉의 사례에서 남측 용어는 '우리말샘'에 있는 것만 활용하였다.

고유어로 구성된 '돈자리'라고 하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고유어/한자어-외래어' 어종처럼 남측에서 경제 분야에 외래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임에 따라 형태가 달라진 어휘도 있다. 이처럼 '남북 형태 불일치형'이 존재하는 것은 분단 이후 남북한 언어 정책의 변화와 함께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남한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제도를 각각 심화 발전시킴에 따라 어휘에도 차이가 생겼기 때문이다.

'남북 형태 일치형'과 '남북 형태 불일치형'을 합친 '남북 대응형'은 1,349개로 전체의 61.82%에 해당한다. '남북 대응형'의 비중을 다른 분야와 교차 비교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이 수치는 대체로 낮은 편이다. 예를 들어 남북 물리 분야의 경우 남한 물리 용어의 약 90%가 북한에도 존재한다는 연구가 있다.[42] 이처럼 경제 분야에서 유독 타 분야에 비해 남북이 공유하는 개념 비율이 낮은 것은 무엇보다 남북한 경제 체제의 차이를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표-14〉 '남북 대응형' 중 '남북 형태 불일치형'

| 형태 비교 | | 예시(왼쪽-북, 오른쪽-남) | 개수 |
|---|---|---|---|
| 남북 형태 불일치형 | 고유어-한자어 | 공수형-공어음<br>넘겨주고받기-인수도<br>결제돈자리-결제계좌<br>어미회사-모회사<br>마감시세-종가<br>계산자리왼쪽-차변 | 19 |
| | 한자어 유의어 | 감가상각금-감가상각비<br>거래수입금-거래세<br>관세지역-관세영역<br>로동지불-로동임금<br>리자부자본-대부자본<br>인체보험-인보험 | 148 |

42)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한반도 물리 분야 학술용어 비교 조사연구」에 따르면 남한의 한국물리학회 『물리학용어집(2019)』 7,778개 용어를 기준으로 북한 용어를 비교했을 때 약 88% 정도의 용어가 대응되는 등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물리 분야의 범위적 격차가 남북 사이에서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경제학은 남북한에서 상이하게 발달해왔기 때문에 용어 간 동일한 개념 비중이 과학기술 분야보다 낮다고 볼 수 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반도 물리 분야 학술용어 비교 조사연구」, 한국연구재단, 2020.

| | | | |
|---|---|---|---|
| | 한자어/고유어-외래어 | 바란스-균형<br>봉사-서비스<br>흐름식생산-컨베이어 시스템<br>반투매관세-반덤핑관세<br>신디케이트대부-신디케이트론<br>선택권거래-옵션거래<br>코너-매점 | 16 |
| 총계 | | | 183 |

출처: 『조선말대사전』과 『우리말샘』을 대상으로 저자 작성.

'남북 형태 불일치형'을 어종에 따라 구분해보았다.[43] '고유어-한자어' 사례 중 조어 단위에서 북측은 고유어를, 남측은 한자어를 쓴 것이 꽤 발견되었다. 북한은 1948년부터 '한자말정리사업'과 '한자사용폐지사업' 등을 펼쳤고, 1960년대 중반부터는 '어휘정리사업'을 추진하여 일본어, 어려운 한자어, 불필요한 외래어가 순수한 우리말로 순화하였다. 학술용어를 대상으로도 한자말, 외래어 정리 작업을 실시하였다.[44] 그러나 196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된 어휘정리사업에서 경제 용어도 그 대상이 되었을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1966년부터 1973년까지 『로동신문』에 게재된 북한의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에 나타난 18개 학술용어분과위원회 명칭을 보면 경제 용어분과는 따로 없고 운수용어, 수산해양용어, 상품명용어, 사회과학용어 분과 등이 존재한다.[45] 경제 용어는 '정치경제학'의 위상을 갖고 사회과학 용어 중 일부로 다뤄졌을 가능성이 있고, 해당 용어 일부가 추후 경제학으로 재편되었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한자어/고유어-외래어' 유형에서 '덤핑(남)'은 '투매(북)', '론(남)'은 '대부(북)', '옵션(남)'은 '선택권' 등 외국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한자어로 바꾸어 받아들인 것이 눈에 띈다. '코너(corner)'는 북측에서 오히려 외래어

43) 고유어를 포함하면 '고유어-한자어'에, 외래어를 포함하면 '한자어/고유어-외래어'에 배치하였다.
44) 최현규·노경란·최효정, 「남북한 과학기술 전문용어의 차이—기초과학 용어를 중심으로」, NKTECH FOCUS NTF 2021-10, 2021, 3-4면.
45) 서민정, 「『로동신문』의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 분석—1966년부터 1973년까지」, 『현대북한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미시연구소, 2014, 11면.

를 쓰는 경우인데, “상품의 판매가격에 대한 단기협정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독점의 가장 단순한 형태.”라는 의미이다. ‘매점매석(買占賣惜)’의 ‘매점’과 동일한 개념이다.

대응되는 남북한 어휘마다 역사적 기원이 있겠지만 본고에서는 ‘수형-어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남측에서 금융 용어로 쓰이는 ‘어음’이 북쪽의 ‘수형(手形)’에 대응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46] 남측에서는 순우리말 ‘어음’을, 북측에서는 한자어 ‘수형’을 사용하는 것이 독특하다. 한편, 북쪽 경제 올림말에도 조어 단위 중 ‘어음’이 있고, 남쪽 올림말에도 ‘수형’이 존재한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기도 하다.[47] 북한 학술용어전자사전 『거울』에서는 ‘어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우리 나라 봉건사회말기 상인들사이에 약속되여 통용되던 돈지불증서. (…) 어음은 한성과 개성을 중심으로 하여 큰 도시상인들사이에 널리 리용되였다. (…) 어음에 관한 특별한 법적규정은 없었으나 신용과 관습상으로 비교적 안전하게 통용되였다. (…) 어음은 20세기초에 이르러 통용될수 없게 되였다. 일제침략자들은 1905년에 조선봉건정부에 강요하여 《화폐정리사업》을 실시하면서 조선사람들의 어음발행을 금지시켰다.

『거울』에서 ‘수형’은 “우리 나라에서 수형은 일찍부터 어음이라고 불리우면서 상인들사이에 널리 리용되였다. (중략)”라고 소개되어 있다. 조선시대 말기에는 ‘어음’이라고 쓰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수형’이라는 어휘가 더욱 보편적으로 쓰이게 된 것이다.

이에 비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수형’은 “‘어음’의 전 용어.”라고 풀이되어 있고, 채만식의 『태평천하』에서 “시내에서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는 대개 수형을 받고서 거래를 합니다.”라는 예문이 부가되어 있다. 북측에서는 ‘어음’을 ‘수형’의 전 용어로 기술하였고, 남측에서는 ‘수형’을 ‘어음’의 전 용어

46) 김희철, 앞의 책, 18-19면.
47) 『조선말대사전』 경제 올림말에는 ‘어음교환소’, ‘어음거래’, ‘기한부어음’, ‘어음할인’, ‘환자어음’가 있다. ‘어음교환소’, ‘어음거래’는 “전날에,” 쓰이던 즉, 조선시대에 쓰였던 것으로 풀이되어 있고, ‘어음할인’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설명돼 있다.

라고 서술하였다. ‘어음’과 ‘수형’이 조선시대에 둘 다 존재하다 북쪽에서는 ‘수형’이, 남쪽에서는 ‘어음’이 차츰 힘을 얻은 것일까?

국사편찬위원회가 관리하는 ‘우리역사넷’에 따르면 “1905년부터 1913년까지 어음 할인, 대출 등을 실시했던 상업 금융 기구.”인 ‘수형조합(手形組合)’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48]

> 통감부가 화폐 재정 정리(백동화와 일본 제일은행권의 교환)로 초래된 금융 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1905년 9월 탁지부령 제16호로 「수형조합조례」를 반포하고, 그해 12월에 한성수형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했다. 수형조합은 한성을 시작으로, 수원, 평양, 진남포, 대구, 전주, 진주, 광주 등 8개 지역에 설립되었다. 당시 은행이 부족한 상황에서 상인들에게 어음 할인, 어음 대출, 당좌예금과 대출 등을 실시하여 일시적으로 금융 경색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한국 상인들은 자금을 얻기 위해 일본 상인이나 통감부에 협력한 한국인 지도층을 보증인으로 세워야 하는 등, 일본 상인에 비해 이용이 쉽지 않았다.

이에 따르면 북한에서 쓰이는 ‘수형(手形)’은 일본어 ‘手形(てがた)’에서 유래한 것으로, ‘수형조합’이 설치되던 1905년 이후 등장하였다. 즉, 조선시기 말에는 ‘어음’이 쓰이다가 일제시기 ‘수형’이 널리 쓰였다. 남측에서 현재 사용하는 ‘어음’은 분단 이후 자본주의 경제가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현대적 의미로 다시 힘을 얻어 지금과 같은 의미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에서는 국가 재정관리만 존재할 뿐 기업이나 사금융 자체가 발달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음’이라는 용어가 현대적 의미로 부활하기보다 대외무역이나 국제금융 등 제한적인 분야에서만 일본어 잔재인 ‘수형’이 쓰인 것으로 보인다.

### 3) 남북 비대응형

남북한 전문용어 비교에서 경제 분야만이 갖는 대표적인 특징은 북한에만 존재하는 어휘 비중과 남한에만 존재하는 어휘 비중이 여타 분야보다 높다는

48) 우리역사넷, http://contents.history.go.kr/mobile/tg/view.do?levelId=tg_004_0530&tabId=01&subjectCode=all(2022.06.20 검색).

점이다. 경제학과 같이 남북한 전문 분야의 범위와 깊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대응형뿐 아니라 비대응형도 다수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앞서 『조선말대사전』(2017) 경제 분야 올림말 2,182개 가운데 '남북 대응형' 1,349개를 살펴보았다. 나머지 833개(전체의 38.17%) 어휘는 북한에만 존재하거나, 개념상으로는 양측에 모두 존재하지만 남측 『우리말샘』에 올림말로 올라오지 않아 대응시키지 못한 사례에 해당한다. 여러 사유로 북한에만 존재하는 어휘를 명백하게 통계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조선말대사전』(2017) 경제 분야 용어이면서, 『우리말샘』에서 '북한어'로 제시하는 187개 어휘 중 사례를 제시하여 나름의 의미를 포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북한 경제 용어 중 북한에만 있는 용어의 분포 양상을 대략적으로나마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만 존재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관련된 어휘를 다음과 같이 다섯 부문으로 구분하였다.(〈표-15〉)

〈표-15〉『조선말대사전』 경제 용어 중 북한에만 존재하는 어휘

| 분류 | 예시 |
|---|---|
| 경제관리 | 분조관리제, 사회주의경제관리, 사회주의경제법칙, 사회주의계획경제, 사회주의시장, 사회주의적분업, 사회주의적소유, 사회주의적집단경리, 사회주의적축적, 사회주의적협동경리, 소농민경리, 수공업경리, 인민경제계획, 재정적통제 |
| 경제계획 | 가격계획화, 계획리윤, 계획수자, 로력계획, 사회주의계획경제, 세부지표, 인민경제계획, 최량계획화, 현행계획 |
| 로동경제 | 간접도급지불제, 간접로력, 개인도급지불제, 로력계산방법, 로력계획, 로력균형, 로력류동, 로력수요, 로력일평가, 로력점수, 로력폰드, 루진도급지불제, 명목생활비, 부대로력, 비생산로력, 생활비기준액, 생활비등급제, 생활비자금, 생활비폰드, 생활비형태, 소비폰드, 전불제 |
| 재정・회계・금융 | 공공경리, 국가경리, 국가관리비, 국가예비, 국가예산수입, 국가예산지출, 기본기금, 독점적고률리윤, 류동기금, 류통면현금, 무역부과금, 보조생산비, 비무역외화, 상업부과금, 생산예비, 생산일반비, 습득비, 예산총화, 예비수자, 우대기금, 원단위소비기준, 원호기금, 은행통제, 직장비, 통제수자, 특별돈자리, 추첨제저금, 현물경리, 협동경리 |
| 가격, 기타 | 가격제정학, 가격격차, 가격계획화, 가격균형, 가격기준, 가격종류, 가격투쟁, 가격편차금, 기업소가격, 되거리판매, 유일가격, 평균가격, 비생산적건설, 비폰드물자 |

출처: 『조선말대사전』과 『우리말샘』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북한에만 존재하는 어휘는 주로 사회주의 '경제관리', '경제계획', '로동경제', '재정·회계·금융', '가격, 기타' 등의 주제로 구분할 수 있었다. 〈표-15〉에 제시된 어휘들에서 보이는 핵심 조어 단위는 '가격', '계획', '기금' 등 기본적으로 남한과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것은 없다. 그렇기에 직관적으로 그 의미를 짐작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예 생소한 어휘들도 존재하며,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뜻풀이를 참고하지 않을 수 없다. 뜻풀이뿐만 아니라 북한 경제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으면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남한에서 생소한 '분조관리제'는 북한 협동농장에서 실시하는 북한 고유의 제도이다. 또한 남측에 낯선 용어로 많이 알려진 '폰드(fund)'는 남한의 '펀드'와는 다소 다른 맥락으로, '본트'라고도 발음되며, "일정한 목적으로 배정된 몫"이라는 의미이다.

## 5. 나가며

북한『조선말대사전』(2017) 경제 용어 2,182개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기준으로 대응하는『우리말샘』용어를 비교하였다.

2장에서는 북한 경제학과 남한 경제학 범위를 고찰해보았다. 북한 경제학에서는 '자본주의경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자본주의경제'는 제국주의 시기 자본주의가 주된 내용으로, 금융 등이 발전한 현대적 자본주의 범위와는 다소 상이하다. 북측 경제학에만 존재하는 주제로는 '경제조종학', '인민경제계획화' 등이 있었다.

3장에서는『조선말대사전』경제 용어의 내용적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광명백과사전 5: 경제』의 7개 분류 체계를 바탕으로 두 사전의 공통 어휘를 추출하였다. '경제에 대한 일반적 리해(24개)', '자본주의경제(77개)', '사회주의경제(88개)', '조선경제사(10개)', '경제학설사(15개)', '국제경제관계(54개)', '경제조종학 및 경영정보체계(7개)' 총 275개 용어가 공통으로 발견되었다. 다음으로 형태적 분석을 위해『조선말대사전』경제 용어의 어종을 분석하여 한자어로만 구성된 어휘 비율이 약 95% 정도로 압도적이라는 점을 밝혔다. 고유어 포함 어휘와 외래어 포함 어휘는 각각 1.9%, 2.7%로 미미한 수치였는데 향후 전문적인 학술용어들이 수록되어 있는『거울』경제 용어의 어종과 비교하는 것도 유의미할 것으로 보인다.

4장에서는『조선말대사전』경제 용어 2,182개와『우리말샘』올림말을 한글 형태를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결과는 '남북 대응형'과 '남북 비대응형'으로 크게 구분하였다. '남북 대응형'은 1,349개로 전체의 61.8%이다. '남북 비대응형'은 833개로 전체의 38.17%였다. '남북 비대응형'에는 북한에만 존재하는 어휘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대응쌍을 찾지 못한 어휘, 개념상으로는 남한에 존재하지만『우리말샘』올림말에는 없어서 대응되지 않은 어휘 등이 포함된다. '남북 형태 불일치형'과 '남북 비대응형' 수치를 객관화하기는 어렵지만, 경향성 파악에는 도움이 된다고 보고 남북한 경제 분야 전문용어 비교의 통계적 결과를 표로 정리하였다(〈표-16〉).

〈표-16〉『조선말대사전』 경제 용어와『우리말샘』 용어의 비교

| 유형 | | | 개수 | | 비중(%) | | |
|---|---|---|---|---|---|---|---|
| 남북 대응형 | 형태 일치형 | 완전 일치형 | 1019 | 1166 | 46.7 | 53.4 | 61.8 |
| | | 어문규범 차이형 | 147 | | 6.7 | | |
| | 형태 불일치형 | | 183 | | 8.4 | | |
| 남북 비대응형 | 북한에만 있는 어휘 | | 833 | | 38.2 | | |
| 총계 | | | 2,182 | | 100.0 | | |

또한 4장에서는 '남북 대응형' 중 '남북 형태 일치형'이『우리말샘』에서는 어떠한 분야적 분포를 보이는지 드러내었다. '경제' 용어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경영', '법률', '일반어', '행정' 등의 순이었다. '남북 대응형' 중 '남북 형태 불일치형'에서는 '어음-수형'으로 잘 알려진 남북 이형동의어에 대해 고찰하였다. '남북 비대응형'에서는 북한에만 존재하는 어휘를 '경제관리', '경제계획', '로동경제', '재정·회계·금융', '가격, 기타'의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에만 있는 경제 어휘의 분포를 경향적으로 파악하고, 경제 분야에서 '남북 비대응형' 어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남북한 경제 용어를 비교하면서 고민했던 지점도 짚어보았다. 비교 작업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의 문제에 따라 연구 방법과 결과가 다양한 양상을 띨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기준은 사전 용어를 할 것이냐, 실용 용어를 할 것이냐, '어떤 사전' 용어를 활용할 것이냐, 남쪽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북쪽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개념의 일치란 무엇인가, 남북한 경제 체제가 다른 상황에서의 개념의 일치란 어느 정도를 말하는가, 총량적 분석의 의미는 무엇이며 효용성은 무엇인가 등이다. 고려 사항이 모두 담기지는 못했지만, 이 글에서 학문적 범위와 남북한 용어 비교를 연계시킨 방법론이 과학기술을 포함해 특히 사회과학이나 인문학 용어 비교 시 조금은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

결론적으로, 남북한 경제 전문용어의 비교에서 '남북 대응형'만을 한정해 본다면 남북 간 소통에 큰 무리는 없다고 보인다. '남북 대응형' 1,349개 올림말 중 '남북 형태 일치형'이 1,166개로 86.4%이고, 한자어 어종이 대부분

이기 때문이다. '남북 형태 불일치형' 중 남북에서 반복적으로 출현하는 조어 단위 패턴이 있는데 그런 사례를 익혀 두는 것으로 충분한 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남북 비대응형-북한에만 있는 어휘'가 약 38.2%가량 존재하는 것은 꽤 높은 수치로 경제 분야만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비대응형, 여기서는 북한에만 있는 어휘의 비중이 높은 원인은 무엇보다 남북한 경제 시스템을 규정하는 제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경제적 규모가 북한보다 훨씬 큰 남한을 중심으로 경제 용어를 비교할 때는 '남북 비대응형'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남북한 경제 분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북한에만 있는 경제 용어, 남한에만 있는 경제 용어에 대한 관심이 필수적이다. 향후에는 여기서 다루지 못한 남한 경제 용어를 중심으로 한 연구, 남한에만 존재하는 경제 용어, 여러 사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북한 학술 용어사전을 대상으로 한 심화 연구도 필요하다.

## ▮ 참고문헌

국가국어사정위원회・통계정보기술교류사, 『거울』2.0, 2017.
백과사전출판사, 『광명백과사전 5: 경제』,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10.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증보판)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7.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증보판) 3』,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7.

강남호・김경표, 『경제학원론』, 정독, 2022.
김동혁,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 이론의 소비에트적 변용—과학이론에서 사회관리담론으로—」, 『史叢』, 고려대 역사연구소, 2017.
김희철, 『남북 경제 금융 상식 용어 해설: 같은뜻 다른말』, 수류책방, 2018.
대외경제정책연구원(조명철 외), 「남북한 무역 용어 비교 연구」, 국립국어원, 2008.
미래와경영연구소 저, 『NEW 경제용어사전』, 미래와경영, 2006.
박은태・박유현 저, 『경제학사전』, 경연사, 2019.
북한개발연구소, 『남북 금융용어사전』, 북스힐, 2021.
서민정, 「『로동신문』의 "우리말 다듬기 지상토론" 분석—1966년부터 1973년까지」, 『현대북한연구』 17,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미시연구소, 2014.
우하은, 「북한 『조선말대사전』 자본주의 경제용어의 특징 분석」,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20.
이준구, 이창용, 『경제학원론』, 문우사, 2020.
정석우 외, 『북한회계의 이해』, 삼일인포마인, 2019.
조규진, 『사회주의기업의 분석—경제체제적 관점—』, 두남, 2010.
진유정・박순성, 『북한의 학문세계(상)』, 선인, 2009.
최현규・노경란・최효정, 「남북한 과학기술 전문용어의 차이—기초과학 용어를 중심으로」, NKTECH FOCUS NTF 2021-10, 202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반도 물리 분야 학술용어 비교 조사연구」, 한국연구재단, 2020.
한국학중앙연구원, 『남북한 학술용어 비교사전: 사회』,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0.
한용운, 「남북 사전의 전문용어 수록 현황과 과제」, 『새국어생활』, 국립국어원 28-4, 2018.
IBK경제연구소, 『남북한 경제용어 비교 사전』, 기획재정부, 2021.

건설사업정보시스템, https://www.calspia.go.kr (2022.06.20. 검색).
우리역사넷, http://contents.history.go.kr (2022.06.20. 검색).
한경 경제용어 홈페이지, https://dic.hankyung.com (2022.06.20. 검색).

【Abstract】

#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economic terminology and a comparative study of North and South Korea —Focusing on *Joseonmaldaesajeon* and *Urimalsaem*—

Choe, Hyo-Jeong*

Existing studies on economic terminology in North and South Korea have mostly presented the results of corresponding pairs. In this paper, beyond presenting the results, the focus is on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and South Korean economic fields. For this purpose, 2,182 words in the economic field of the North Korean *Joseonmaldaesajeon(2017)* were analyzed in content and form and compared with the vocabulary of the South Korean *Urimalsaem*. First,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scope of inter-Korean economics in consideration of the differences in economic systems, it was empirically revealed that there are many differences in the scope and classification of inter-Korean economics. Based on the common vocabulary of *Joseonmaldaesajeon(2017)* and 『Encyclopedia of Gwangmyeong: Economy』, the distribution of contents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of the North Korean economy was examined. In addi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2,182 species of economic terms in *Joseonmaldaesajeon(2017)*, it was revealed that 95.5% of the vocabulary consisted of only Chinese word species. The *Joseonmaldaesajeon(2017)* compared the economic terms and the vocabulary of the Korean language, and divided them into 'South-North corresponding type' and 'South-North non-corresponding type'. Of the 2,182 items, the proportion of 'South-North corresponding type' was 61.8%, and 'South-North non-corresponding type' was 38.2%. In conclusion, if we look at the 'South-North corresponding type' only, the proportion of 'South-North conformity of form type' is high, and since most of the fish species are Chinese characters, there seems to be no problem in inter-Korean communication of 'South-North corresponding type'.

* Ph.D. Candidate, Dept. of North Korean Studies, Dongguk Univ.

However, since there are a large number of 'North-South non-corresponding types' (about 38.2%), it can be seen that interest in economic terms unique to North Korea and economic terms unique to South Korea is essential for smooth communication.

Keywords: North and South Korean economic terms, economic terms, rounded words, headwords, technical terms, academic terms, *Joseonmaldaesajeon*, *Urimalsaem*.

접수일: 2022.06.30. ‖ 심사일: 2022.07.18. ‖ 게재확정일: 2022.08.23.